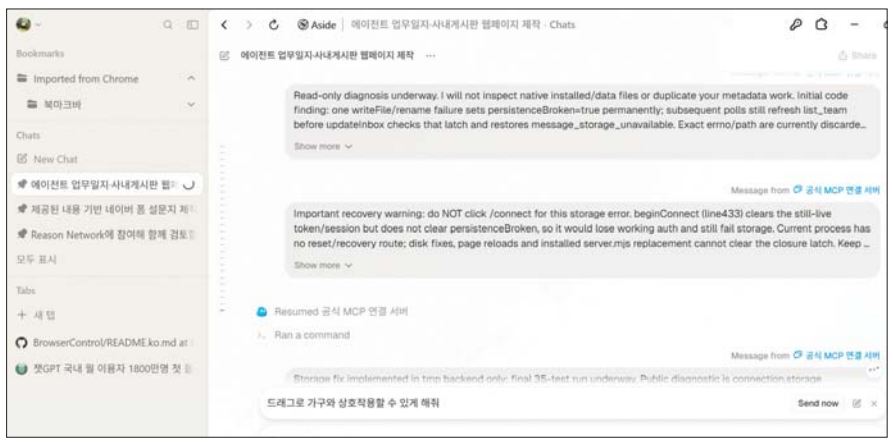
네이버 폼 열어 설문 입력, 엑셀·홈피 제작 스스로 '착착'

AI 에이전트 시대 성큼

❷ 웹서핑 대신하는 AI

어사이드, 브라우저 내 AI 비서 결합
구글 '제미나이'로 크롬 웹 작업
네이버 웨일, 요약·일정 등록 지원

AI 웹 활동에 공개 콘텐츠 품질↓
프리미엄 콘텐츠로 폐쇄성 심화 우려



기자가 AI 브라우저 '어사이드(Aside)'에서 AI 에이전트에게 웹페이지 제작을 맡긴 화면. /어사이드 화면 캡처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입력칸을 채우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일을 인공지능(AI)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용자가 일일이 검색하고 클릭하던 브라우저가 AI 에이전트의 작업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AI 브라우저 '어사이드'에 설문 문항을 건네자 AI가 네이버 폼과 구글 폼을 열어 문항을 입력하고 설문지를 만들었다.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미리 정해둔 양식에 맞춰 한글 문서도 작성했다. 엑셀 파일과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AI 에이전트끼리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는 '리즌 네트워크'를 연결하자 서로 다른 AI 모델들이 서로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결과를 교차 검증하며 분업했다.

AI 브라우저는 웹페이지 요약이나 질문에 답하는 기능 등 AI를 결합한 브라우저를 말한다. 이 중에는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클릭과 입력 같은 작업까지 수행하는 기능도 있다.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목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라면, 브라우저는 에이전트가 웹에서 일하는 공간이자 도구인 셈이다.

◆새 브라우저부터 기존 크롬·웨일까지

AI를 접목하는 방식은 별도의 AI 브라우저를 설치해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쓰던 브라우저에 내장된 기능이나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외부 AI 에이전트가 연결해 사용하는 브라우저도 등장했다.

어사이드는 브라우저 안에 AI 비서를 결합했다. 이용자는 로그인한 웹사이트와 계정을 활용해 메시지와 업무 도구 등에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퍼플렉시티의 '코멧'도 별도 브라우저로, 검색과 정보 정리뿐 아니라 여러 웹사이트의 상품을 비교하는 등 웹 작업을 돕는다.

'이고 라이트'는 외부 에이전트가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등과 연결하면 이용자가 선택한 에이전트가 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양식을 입력할 수 있다.

구글은 기존 크롬에 들어간 '제미나이인 크롬'의 '오토 브라우즈' 기능으로 여러 단계의 웹 작업을 지원한다. 구글은 날짜별 항공편과 호텔 가격 조사, 온라인 양식 입력,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작업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웨일에 웹페이지 요약·번역과 질의응답, 탭 정리, 네이버 캘린더 일정 조회·등록·수정 등을 지원하는 'AI 챗'을 출시했다.

챗GPT와 클로드는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 오픈AI는 독립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종료하고, 브라우저 기반 에이전트 기능을 챗GPT와 코덱스로 옮겼다. 크롬 사이드바에서 챗GPT를 쓸 수 있도록 크롬 확장 프로그램도 개편했다.

◆AI, 웹 요청 급증…광고 기반 웹 '흔들'

AI가 웹에서 활동하는 규모도 커지면서 광고 기반 웹의 구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기업 휴먼 시큐리티에 따르면 자사 보호 서비스가 적용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관측한 10월 에이전트 요청량은 전월보다 157.5% 증가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AI가 필요한 콘텐츠만 싹 뽑아가면 광고는 노출은 안 되고 콘텐츠만 뺏기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콘텐츠 사업자들은 공개된 사이트에는 품질이 그렇게 높지 않은 퀄리티의 정보만 공개하고, AI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프리미엄 콘텐츠를 두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인터넷상의 공개 콘텐츠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김보민 기자 kbm@metroseoul.co.kr

대출심사에 근로·노무제공 이력 반영

금융위-고용부-금감원 등 '맞손'
건설근로자·노무제공자 포용금융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추진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가 건설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체계 구축에 나선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고용 형태가 다양해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금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등과 함께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 형태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근로와 노무제공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관련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근로·노무제공 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이력과 노무제공자의 활동 이력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금융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와 신용평가 과정에서 실제 근로이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소득의 불규칙성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한 금융상품을 발굴하고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 애로 해소와 경제적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를 연계하고, 금융상담과 재무상담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노동단체와 노무제공자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 금융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근로이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2027년 중 출시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근로이력 정보를 대안신용평가에 반영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흑석10구역 재개발, 중앙대와 맞교환 추진

중앙대 희락관 부지 약 2988㎡ 규모
구체적 조건, 정산 등 아직 미확정



지난 10월 서울 동작구 흑석10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 일대에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0구역 재개발 추진 측과 중앙대학교가 토지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대 소유의 옛 희락관 부지와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교환해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리하고, 아파트 배치와 도로체계를 개선하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토지교환은 확정되지 않아 협의가 무산될 경우 서울시가 최근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의 일부 계획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1일 서울시와 동작구청, 중앙대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확정한 흑석10구역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는 중앙대 소유의 옛 희락관 부지를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동작구청은 이달 2일 서울시로부터 가이드라인 확정 통보를 받았다.

교환 대상으로 검토되는 희락관 부지는 동작구 흑석로7길 17 일대 약 2988㎡ 규모다. 현재 중앙대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이번 토지교환은 중앙대 소유 부지와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맞바꿔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구역 내 아파트 동 배치를 효율화하고 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흑석10구역은 고구동산으로 이어지는 구릉지와 최대 69m에 달하는 지형 고저차, 좁은 진입도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곳이다. 과거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비사업이 중단돼 2014년 7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에서 도로체계 개선과 지형에 순응하는 주거단지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존 왕복 2차로인 흑석로의 폭을 12m에서 15m로 넓혀 3차로로 확장하고, 흑석로에서 동양중학교와 본동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연결하는 폭 14m의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보도와 전면공지를 활용해 최대 5m 폭의 보행공간도 확보한다. 고구동산 인근에는 6~8층의 저층 주동을, 지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는 최고 23층의 고층 주동을 배치할 계획이다. 희락관 부지 토지교환은 이 같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됐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양측은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맞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중앙대 측에서도 희락관 부지 토지교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 조건과 토지가치에 따른 정산 문제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교육부의 허가 등 관련 절차도 거쳐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환하려면 재산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과 처분 가액 등이 확정된 단계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며 "재산처분에 따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지교환이 최종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중앙대와의 토지교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거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중앙대 부지를 기존 상태로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

청년 고용률 42.9%… 30개월 째 하락세

데이터처 '지난달 고용동향'
제조업 취업자, 반등 후 다시 감소

청년 고용률이 30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0월 기준으로는 6년 사이 가장 낮았다. 청년층 취업자 수도 48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3만9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감소폭도 지난달 14만7000명보다 확대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p) 내렸다. 30개월 연속 하락으로, 10월 기준으로는 2020년 4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인 15~34세 취업자는 632만3000명으로 13만1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5.4%로 0.6%p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처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청년층 취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과 운수 및 창고업 등에서는 늘었지만 정보통신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줄었다고 설명했다.

빈 국장은 "청년층 인구도 14만1000명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에 비해 취업자 감소폭이 크다 보니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수시 채용 문화와 경력직 선호 등도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고용률 하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435만7000명으로 7000명 줄었다. 지난 9월 1만6000명 늘며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화학물질과 금속 가공제품,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으나 섬유제품과 자동차, 의복 등에서 줄었다.

빈 국장은 "이번 달 한 달만 가지고 지난달이 반짝 상승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고용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